

南北接觸戰略

1972. 12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2년도 하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研究責任者 禹 在 昇

目 次

I. 序 論	3
II. 對話 있는 對決	
70 年代의 南北對話	8
III. 南·北接觸戰略의 目的	13
IV. 國際社會的 餘件	19
V. 對北戰略으로서의 社會 變動 理論	24
VI. 社會心理學的 社會變動理論	30
VII. 段階的接近 - 機能의 接觸	36
VIII. 機關形成 (Institution Building)	42
IX. 機關形成과 統一指向性評價	47
X. 接觸過程에서 展開되는 自由化現象 指數 (Indices)	52
XI. 結論: 逆機能에 대한 韓國의 對備策	57

I. 序 論

오늘날 우리는 민족사상 포하나의 중대한 轉換點에 놓여 있다. 과거 四半世紀 동안 명실공히 완전히 단절되었던 남북간의 對話의 길이 충격적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과연 이 대화의 방향이 궁극적으로 여하한 進路를 택하게 될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 民族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안겨준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 시점에 남북간의 대화의 방향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좌표설정 에 따르는 전략의 준비는 우리 민족의 앞날을 가늠하는 중차대한 사명이다. 따라서 본 南北接觸戰略은 試案인 동시에 잠정적인 것으로 받아 드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에 의한 研究對象이 되어서는 부족하며 좀더 總體的 연구의 결과로서만이 완성품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試案이라고 하였다.

또 이것을 잠정적인 것이라고 했다. 南北接觸은 오랜 세월 에 걸쳐 진행되는 過程的現象이니 만큼 매우 動的(Dynamic)이다. 고로 항상 理論的 變數의 재검토를 요하고 座標模型(Theoretical model)을 언제나 시험해 봐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한나라의 같은 민족이 再結合하는 마당에 接觸戰略이 필요한 것인지? 일반적으로 말해서 人間은 個人이건 集團이건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향해 그들의 정력을 바치는 것이 인간이다. 따라서 政治的인 人間集團 역시 그 목적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全國民을 動員하기 위해 고도로 組織化한다. 이것이 政治集團이다. 韓半島에서의 남과 북은 다같이 조직화되어 있다. 특히 남과 북

은 社会体制과 理念을 달리하는 異質的 정치집단으로 극단적인 대치상태에 놓여 있는지 四半世紀가 지났다.

이와같이 두개의 극한적인 상태하에 있었던 인간집단이 처음으로 대화한다. 남과 북이 치밀한 제척과 전략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남과 북은 27년간이란 오랜 세월을 별개로 독자적 위치를 구축해온 정치단체다. 「파슨스」(T.Parsons)가 말한 그 社会体系, (Social System)를 유지·존속하기 위한 類型維持, (pattern maintenance)기능이나 適應機能, (adaption)은 물론 統合機能, (integration)이나 目標達成機能, (goal-attainment)도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어떤 정치집단도 그렇듯이 그집단의 존속이 그들의 지상과제임은 쉽게 알수 있다.

더욱이 그 정치집단이 북한과 같은 一人獨裁요 唯一思想으로 무장되어 있을 경우 그 성격상 政權安保가 절대적 가치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와같은 体制과 접촉하여 통일을 논할때 그들이 말하는 통일이란 赤化統一임에는 틀림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목적은 당면한 단기적인 목표가 아닐수도 있고 평화적인 성격을 가질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최종적 목표로서는 변하지 않는다.

지난 1971년을 기해서 남·북간에는 離散家族들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 대화의 문을 열었다. 정말 충격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7.4남북공동선언이 있으며 南北 調節委員會의 會同이었다. 매우 급진적인 발전이다.

이것이 여러가지 가능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을 가지고 궁극적인 방향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 북한 대표들의 대화속에 이질적인 사회체제나 이념을 초월한 민족적인 공동단결과 진정한 人道的精神은 도대체 찾아 볼수 없다. 북한의 태도에 있어서 對話開始 이전과 뚜렷이 구별될수 있는 정책적 방향전환을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金日成체제를 武力對決과 대화있는 대결에 동시에 대비할수 있겠끔 체제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무력대결을 위해 四大軍事路線의 完備를 자랑하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의 집단이다. 이 지구상에서도 類例가 드문 철저한 혁명이론의 소유자들이다. 階級鬭爭을 무기로 資本主義사회를 타도하려는 그들의 목표가 변할수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김일성의 抗日武力鬭爭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광신적 신봉자들이다. 그들의 전술적 방향전환은 있을수 있다. 현재의 군사력으로는 勝算이 없어 남한에서의 공산화를 남조선 인민의 人民革命에 마끼겠다는 등의 정책변화를 볼수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철저히 武裝化된 사회와 고도로 조직화된 북한을 상대로 대화있는 대결을 역어 나감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접축전략의 필요성은 강조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고로 이와같은 필요를 인식하고 필자는 종합적인 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상해 보았다.

먼저 70년대의 兩北對話 즉 "대화있는 대결"의 現況을 간단하게 검토하겠다. 그리고 上述한 바와같은 북한의 對南戰略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對北接觸戰略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整理하여 보았다. 대외적인 측면과 대내적인 면을 검토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對北戰略에 역점을 두었다. 목표를 當面目標, 中間目標, 그리고 最終目標로 구별하였고 나아가서 그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한 북한사회의 社會變動 추세를 加速化시키는 方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보았다. 물론 이와같은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도 밝혀보는 것이 순서였다.

그다음에는 이러한 接近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假說的前提로서 국제정세의 전망을 概述한 후 대북전략으로서의 社會變動 理論을 정립하고 나아가서 社會心理學的 내용의 사회변동이론을 설명하였다.

제7장에는 機能主義理論에서 지적되는 핵심적 변수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接觸過程에서 발생하는 運動作用 (Process mechanism)을 極大化할수 있도록 힘써 보게 된다.

이와같은 理論을 기초해서 接觸方法을 구상하여 설계하였다. 즉 지금까지 알려진 段階的接近과 機能的接觸을 정리하였으며 그 접촉의 유형에 따라 直接的接觸과 間接的接觸으로 구별하였다. 여기서 이 접촉의 효과를 測定하기 위해서 物量的 계산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다음에 간단한 예를들어 보았다. 제8장에서는 接觸過程에서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制度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機關形成 (Institution building) 문제를 대화또는 협상단계에서 필요로하는 接觸機關形成과 어떤 특정된 사업을 주관하고 집행하는 執行事務局으로 구별해 보았다.

이 기관형성에 관해서 제9장에서는 어떠한 구조 또는 성격의

기관이 統一指向的인가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여 설명해 보았다.

끝으로 접촉과정에서 展開되는 자유화 現象을 평가하고 접촉전략을 시험해 볼수있게 몇개의 중요한 指數 (indices)를 例示하였다. 이어서 남북접촉과정에서 남한자체에 미칠 역기능적 現象에 대비하는 문제를 略述하고 결론으로 글을 맺었다.

II. 対話 있는 対決 : 70年代의 南北対話

70年代에 접어 들자 國際情勢는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美國과 소련을 頂上으로한 東西兩陣營 관계를 성격지위준 兩極冷戰体制는 戰後体制로서 그 막을 이제 완전히 내린 것이다. 이와같은 70년대의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이미 60년대 후반기에 그 싹이 트기 시작했다. 平和共存이란 旗幟아래 強大國간의 共同利益을 위한 상호협조는 弱小國들에게 있어서는 위험한 경종이 었다. 그당시 까지도 방향을 잡지 못해 유동적이었던 強大國外交도 1971년 여름 「닉슨」 미국대통령의 중공방문 선언으로 국제사회의 새 질서를 정립하는 일대 전환적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韓半島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강대국간의 實利追究와 勢力均衡 정책은 分斷國의 운명을 실로 불안하게 하였다. 이 시점에서 韓國은 自主的으로 강대국의 緊張緩和政策에 적응하고 국제정세변화를 실력의 바탕위에서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에 안정을 유지해서 강대국정치의 희생물이 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1970년에는 8.15 平和統一構想을 朴正熙대통령이 선언하고 그 일년후인 1971년 8월 12일에는 대한적십자사의 최두선 총재가 남북간 이산가족찾기운동을 위해 南北赤十字會談을 제의하였던 것이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의 움직임을 지켜 보면서 적십자회담에 응하므로써 解氷的 분위기를 조성하여 미국의 「닉슨」 「타트린」에 의한 미군의 철수를 가속화시키고 中共분을 타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UN의 역할을 약화하여 한국을 군사적으로 약화 내지는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상대적으로 북한의 지위를 굳혀 보려는 야심아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를 수락하여 쌍방 각지 2명식의 파견원을 8월 20일 정오에 판문점에서 문서를 교환토록 합의하였던 것이다. 그후 남북적십자회담은 꾸준히 계속되어 5차에 걸친 派遣員의 접촉이 있었고 25차에 걸친 予備會談과 16차에 걸친 제일, 제이실무자회담의 결과 본회담을 평양과 서울에서 교대로 개최하여 이미 제4차 본회담을 최근 서울에서 갖게 되었든 것이다. 남북적십자회담의 진척에 따라 한적은 회담에 관련된 사무를 전담할 韓赤會談事務所를 신설하고 會談前方事務所도 설치하였다.

동시에 쌍방은 常設會談連絡事務所를 각각 「자유의 집」과 「판문각」에 설치하고 직통 왕복전화를 가설하여 남북대화의 길을 制度化하였다.

남북적십자회담이 가지는 정치적의의는 국내외적으로 높이 평가되어 왔다. 남북적십자회담이 제의된 직후 박대통령은 8.15 치사를 통하여 가족찾기 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나아가서 정부는 남북간의 접촉에 대한 기본방침을 발표하여 三段階 接觸方案을 제시하였으니 남북적십자 회담의 앞날에 대한 희망적 기대와 회의적 비판론이 동시에 교차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1972년에 접어들어 5월 16일에는 社會體制가 달라도 非敵對國家와는 수교할것을 선언하였고 6월 25일에는 남북한간에 무력

및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을 때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전혀 예기치 못하였던 정책전환이란 평은 없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7.4 南北共同聲明임에 틀림없다. 물론 남북한의 고위층이 비밀리에 평양과 서울에서 이미 회동하였다는 사실 그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그회담이 지니는 의의는 정말 전 세계를 흔들만 하였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한다는 공통된 염원으로 이루어진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은 조국통일의 원칙으로서 첫째로 外勢에 의존함이 없이 自主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한다.

둘째 武力을 사용하지 않고 平和的方法을 택하며 셋째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는 초월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불신을 씻기 위해 상호 중상 비방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끊어졌던 民族的 連繫를 회복하기 위하여 諸般交流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같은 남북공동성명이 있는 후 南北調節委員會共同委員長 회의가 3차에 걸쳐 회동하게 되었고 제3차 서울회담시에는 南北調節委員會가 정식으로 발족하여 제일차 회담을 갖고 동위원회의 運營問題를 포함한 남북간의 현안을 협의하였다.

이 남북조절위원회의 발족은 그자체가 27년간 쌓였던 남북한간의 오해와 불신을 한꺼번에 해소시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정치 경제 사회문화등 각분야에 걸친 남북간의 현안문제를 협의 타결해 나가는 대화의 通路를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남북한 쌍방이 앞으로 성실과 인내에

바탕을 둔 끈질긴 노력으로 조절위원회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조국의 自主的 平和統一에의 길을 마련할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남북조절위원회의 발족은 획기적인 것이 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1972년 11월 4일 남북 조절위원회 공동 위원장 제2차 회의 共同發表文과 동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合意書를 볼때 그성격을 좀더 예리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합의서는 7.4 공동성명의 合意事項을 상당히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거기에는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람간의 政治的 交流, 남북간의 經濟·文化的交流 그리고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軍事的 衝突을 방지하기로 규정하고 우선 放送戰을 중지하기로 합의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合意는 7.4 공동성명의 원칙 즉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며 남은 북의 社會主義制度를 다른 社會制度로 변경시키려하지 않으며 북은 南에게 社會主義制度를 강요하려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접촉은 남북의 분단상태를 먼저 인정하고 기정사실화해서 制度化해야 한다는 뜻이 명백하다. 이울배반적인 이야기고 모순된듯하나 통일을 위해서는 분단을 고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이 교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최소한 안정된 관계가 필요하며 이 남북관계의 安定化는 분단의 제도화를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뜻에서 獨逸의 예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많다고 본다. 「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은 一民族 二國家, (One nation two

states)란 정책을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쌍방간에 상대방의 존속과 自己維持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부정한다는 조건하에 민족적교류나 그 교류를 통한 融合 관계를 통일의 次善의 방안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이 접촉전략을 구상할때 상기한 조건하에서 출발한다. 민족적교류를 통한 북한 내부에서 일어날수 있는 사회변동 현상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進化現象을 우리 전략의 목표물로 삼겠다는 뜻이다. 상대방의 사회체제에 대한 正面的인 도전은 있을 수 없다. 다만 그 사회가 용납하는 行為者(actor) 상호간의 相互作用(intaction)에서 문제의 핵심을 찾으려고 한다.

Ⅲ · 南北 接觸戰略의 目的

앞서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北韓社會體制에 대한 정면적 도전은 7.4 공동성명 정신에 위배된다. 오직 남북대화나 接觸交流를 통해서 間接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일어날수 있는 社會心理學的立場에서 보는 變質要因을 刺戟 誘導 내지는 開發하여 상호작용을 極大化 시키는 間接的 우회전략이다. 따라서 우리의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있을수 없다. 서술의 편의상 최종목표를 우선 밝히고서 그들 목표를 위한 當面課題와 中間目標을 說明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對北韓 戰略을 정립한 후에 그것이 뜻하는 對外的意義와 그에 다른 對內的問題를 追加해서 검토하겠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변함없는 自由·民主 統一이다.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총선거를 통한 單一政府의 수립이다. 이 단일정부의 수립은 다음 세가지의 성격들 뚜렷이 해야 한다.

첫째 自由民主主義를 그 政權의 基底理念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통일이 되고 나서 韓民族이 다시 분열되거나 통일을 유지 지속해 나가는데 어려운 위기가 있어서는 안된다. 고로 우리의 통일은 韓民族의 大同團結과 總和體制를 구현하고 유지할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외적으로 통일된 한국은 現代國家이 基本的權利인 主權 獨立 및 平等을 確保하고 나아가서 自主 自立 自衛하는 국가로서의 체신을 내외에 과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같은 최종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短期的 當面目標을 설정하고 中期的 中間 목표도 설정할 수 있다.

南北間の 對話, 接觸 및 交流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 當面目標를 위해 努力한다. 그들은 1) 緊張緩和에 의한 戰爭抑止 2) 外部世界에 대한 무지로 부터의 解放 3) 民族主義 意識昂揚 4) 黑白論理的 인식론의 배제 5) 思想的思考統制로 부터 解放 6) 家族찾기 運動을 통한 傳統的 價值 開發 7) 出身成分間의 모순과 갈등을 極大化 등이다.

1. 緊張緩和에 의한 戰爭抑止

對話나 接觸은 緊張緩和의 좋은 수단이다. 對話가 없는한 무력대결의 가능성은 더욱 증대한다.

緊張緩和에는 小極的인 方法과 積極的인 方法으로 우리側 의도는 언제나 평화적인 사실을 행동으로서 증명이 될수 있게 모든 政策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그러나 좀더 積極的인 方法이란 相對方의 地位를 구체적으로 向上시켜 대등한 位置에 까지 올려두는 것이다. 北韓으로 하여금 政治集團으로서의 自信과 安定感을 가질수 있게 協力해야 한다. 具體的인 例를 들면 前者에는 과감한 軍비나 兵力의 減縮이 있을수 있고 後者에는 北韓의 國際的인 地位를 向上하기 위해 UN에 同時加入 같은 것이 있다. 對等한 位置까지 오지 못했을 경우 북한은 자신이 없어도 자신이 없는 동안에는 북한 사회를 完全히 開放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外部世界에 대한 無知로 부터 解放

自己의 位置를 相對的으로 옳게 判斷하고 새로운 人生觀과 價

值哲學을 배우는 길은 외적인 요인이 가장 效果的이다. 外계로부터의 刺戟은 自己 發展과 自己 反省의 契機가 되기 때문이며, 比較·對照할수 있는 機會가 된다.

3. 民族主義 意識의 昂揚

北韓社會에 民族意識을 強力하게 注入하게 되면 다음에 說明하는 社會心理學的 側面에서 볼때 그것이 어떤 다른 社會價值보다 우선하고 絶對化하여 기준가치 체제와 상충 競合하게 된다. 특히 북한 사회와 같이 金日成 유일사상으로 訓練統制되어 있는 경우 價值體制의 矛盾은 그들의 忠誠心에 混線을 야기한다. 이것이 社會變遷의 動因이 된다. 그리고 南북한의 경우 민족의식은 급진적으로 개발될수 있다.

4. 黑白論理的 認識論의 排除

이것이 곧 社會變質의 씨앗이다. 接觸을 通해 情報의 投入 (input)을 양적으로 증가시키고 質的으로 多樣化해야 한다. 社會價值體系의 상대적 성격을 인식할수 있도록 立場의 차이를 볼수 있게 한다.

5. 思想的 思考統制로 부터 解放

北韓社會는 金日成 唯一思想에 의해 徹底히 訓練되어 있다. 즉 金日成의 抗日武力鬪爭思想과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순결성을 主張하고 있다. 이같은 사상을 상반되는 사상 즉 「부르조아」

사상등으로는 이해시키기는 極히 어렵다. 오직 유사한 사상 즉 東歐圈의 修正主義가 가지는 問題點을 分析하고 意識하는 데서 부터 새로운 사고 유형이 개발될수 있다.

6. 가족찾기 운동을 통한 傳統的價值를 개발

가족, 친족, 혈연문화등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고 개발함으로써 革命思想 唯一思想을 退色하게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傳統思想은 封建思想이고, 복고주의로 糾彈을 받을 가능성이 짝다. 따라서 社會主義 사상이 가지는 사회정의를 바탕으로한 人民民主主義의 長點을 수용하고 資本主義社會가 가지는 모순을 인정하면서 오직 人間回復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7. 출신성분간의 모순과 갈등을 極大化

社會流動性 (Social mobility)이 極히 制限 統制된 北韓社會에서 소외된, 복잡 한 階級들은 그들의 과거를 회상시키므로서 現在의 질식상태를 더욱 明確하게 인식할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堂面목표를 수행하는 이유로서는 우리의 中間目標가 뚜렷하고 社會變動을 유도하는 方向이 明確하게 設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中間目標로서는 1) 대화와 接觸으로 北韓社會體制의 變質을 誘導하고 加速化한다. 2) 人間回復思想을 부각시켜 自由化의 바람을 이끈다. 3) 自由民主主義 理念을 이해하고 同조하게 한다. 4) 北韓의 政治的 轉換期나 變異를 正確하게 포착하고 活用할 수 있는 社會 風土나 條件을 造成한다. 따라서

「테크노크라트」의 經營政權 (Technocrat-Management Government) 이나 아니면 集團指導體系를 수립할수 있게 유도한다. 5) 북한사회의 조직적 상호감시로 부터 해방되게 한다. 6) 脫 「이데올로기」적 傾向을 유도한다. 7) 自由放任의 社會主義 (laissez faire socialism)를 유도한다. 이것이 우리의 中間단계적 목표이다.

위의 目標設定은 적어도 세가지의 이론적 기초위에서 設定된 것임을 밝혀 둔다. 卽 첫째는 社會變動理論 (Theory of Social Change)에서 유도하였고 둘째는 社會心理學的 理論 (Theory of Social Psychology)에서 찾았으며 끝으로 機能主義 理論 (Theory of Functionalism)에 基礎를 두었다. 이들 理論은 뒤에 다시 說明하겠으나 우선 두가지의 問題點에 대해서 言及하겠다. 첫째는 外的要因의 문제이며 둘째는 對內的 逆機能의 문제이다. 즉 남한에도 社會변화의 과정은 동시에 끊임없이 進行된다는 사실이다.

먼저 外的要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四大強國은 二次大戰 이후 形成된 勢力均衡을 가능한한 現狀凍結로서 유지해 보려는 政策的 의도가 있는 것으로 解釋한다. 격변적인 세력변경은 피한다. 동시에 현상동결이 가지는 衝突 危險性은 가능한 除去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무력충돌이 발생할시 현상변동을 복구 또는 방지하기 위해 충돌에 직접적으로 參與될까 두려운 가늠이다. 고로 남북간의 緊張緩和를 위한 어떠한 대화나 接觸도 獎勵할 것이 分明하다. 따라서 對外的으로는 南北間의 對話를 積極 推進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설정한 당면 목표나 中間목표에 합당한 外交戰略은 積極 推進해야 한다. 例로

서는 對共產陣營과의 積極外交를 模索하고 對中共이나 北朝鮮 외교를 구체화하여 接觸 對話의 길을 열어야 한다. 우선 北韓을 國際機構에 同時加入시켜 國際會議을 통한 對中共 및 對蘇接近을 試圖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대미 일변도적 외교를 지양할 것이 要望되며 한국이 처해 있던 대외적 「이미지」를 좀더 革新的으로 바꾸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의 A·A 「부록」에서 소외되기 쉽다.

대내적인 逆機能에 대해서는 國內 總和體制를 再整備하여 외유 내강적 組織化가 必要하다 하겠다. 이같은 體制 整備은 올바른 国力評價를 바탕으로 한 計劃이어야 할 것이니 国力評價는 相對的인 評價가 되어야 한다. 北韓의 力量을 正確하게 認識한 後에 그것에 대비하고 相應할 수 있는 国力組織이면 足하다고 본다. 이러한 問題에 대한 國內的 對備策은 뒤에 다시 具體적으로 檢討하겠다.

Ⅳ. 國際社會的 與 件

南北 接觸戰略을 論하면서 國際社會의 與件을 分析하는 理由를 筆者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본다. 첫째 한반도가 位置하고 있는 地政學的 性格이 韓民族에게 分斷이란 運命을 가져다 준 것이 틀림없으니 그 분단상태를 변경시키려면 주변 강대국들의 利害關係를 고려에 넣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國際政治上的 行動役 (Actor)으로서 강대국 정치의 性格을 이해하는 것이 한국이 能動的으로 對處하는데 꼭 必要한 것이다. 둘째 국내사회가 변동하는 데는 역시 국제적인 변수가 많다 하겠다. 閉鎖社會와 開放社會와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것도 정도의 차밖에 없다. 따라서 北韓社會 變遷의 變數로서 國際的 與件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 外國社會와 對照 比較해 봄으로서 自國社會의 特異性을 認識할 수가 있고 外國으로부터 오는 여러가지 消息이 情報源 (information sources)의 役割을 한다는 것이다. 셋째 南北間의 對話나 接觸은 直接的으로 한반도에서 만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국제무대에서 직접, 간접으로 對話나 接觸을 할 수 있고 할 기회가 많으니 국제사회는 南北對話 또는 接觸의 무대로서 무대배경의 性格을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必要하다. 이와 같은 理由에서 여기서는 70年代의 國際政治體制의 構造와 性格을 說明해 보겠다.

이제 국제무대에서는 二次大戰後의 戰後시대는 끝났다고 한다. 그러면 戰後時代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제일 먼저 지적해야 할 성격

이 국제사회에서의 多極化 현상이다. 美·蘇間의 兩極體制은 五強體制로 탈바꿈을 하였다. 중공과 일본을 위시해서 구주공동체를 합한 五大強國이 19세기적인 勢力均衡을 基調로 하는 새로운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각국은 「이메오르기」보다 多元化를 지향하는 勢力均衡上의 고려에 의해 同盟 및 우호관계를 재조정하고 있음이 뚜렷하다. 美國은 強大國間의 勢力均衡의 形成에 主導的인 努力을 繼續하고 있다.

이와같은 勢力均衡의 움직임은 1962年 「큐바」 「미사일」 위기를 起點으로 미·소의 共存政策이 戰後 미·소冷戰體制의 解氷을 豫示한 것이었다. 美·蘇 및 美·中共間의 「데탕트」는 국제사회의 새로이 形成되는 多極體制의 出發을 알리는 信號였다. 이것은 強大國間에 현실적이 共同利益의 領域이 넓어 졌음을 말하고 있다. 強大國의 權益은 현상타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상유지에 있다는 사실을 再確認한 것이다.

이제는 「이메오르기」의 성격이나 그 政治的 役割도 크게 變質하였다. 大戰後 美·蘇兩極體制가 그 태전을 굳힐수 있었던 사실도 對峙되는 두개의 「이메오르기」가 存在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메오르기」의 배타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해 자기진영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여타의 국가들은 체계화된 位階秩序의 틀 속에서 만이 개개국의 政治的 位置를 찾을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메오르기」의 일원적, 배타적 해석이 불가능하게 되고 劃一的 순수성을 과시하던 「이메오르기」도 그 성격을 變質하여 多義化하게 되었다. 따라서 理念보다는 實利를, 그리고 當爲보다는

現實을 더욱 重視하는 國際社會의 政治風土가 造成되었다. 이와같은 實利主義, 現實主義나 實用主義는 國際政治의 勢力均衡面에서나 外交戰略面에서 그 影響을 크게 느끼게 했으며 國際政治의 基本構造의 變化에 決定的인 役割을 하게 된다. 즉 탈 「이베오르기」적 實利追求現狀은 오늘날의 國際社會의 性格을 規定지어 주는데 充分하다고 본다.

위에서 말한 國際社會의 性格이 그와같이 形成되기 까지는 여러가지의 變質要因이 있다. 그중 가장 重要하다고 느끼는 事實은 科學技術의 發達로 인한 戰略武器의 開發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核武器를 中心으로 일어난 힘의 均衡은 武力戰爭에 대한 공포의 均衡(Balance of Terror)으로 변하고 차기의 戰爭은 勝利者없는 自滅의 길이라는 認識이 굳어졌다. 따라서 平和共存이나 緊張緩和는 人類를 自滅에서 구하는 유일한 길이란 것을 確信하게 되었다. 또한 하나의 事實은 國際社會의 行動役(Actor) 가운데 新生後進國의 數가 急增하였다는 事實이다. 即 行動役의 數가 急增함에 따라 冷戰體制下的 宗主國의 統制能力이 相對적으로 弱화했다는 事實과 이들 新生後進國의 團結은 第三勢力圈을 形成하기에 이르러 東西間의 中政자로서 제3세계의 中立的 實力을 誇示하게 되었다. 同時에 民族獨立이나 植民地解放運動이 이들 新生國 政治指導者들의 指導理念이었던 것이 獨立을 爭取한 이제는 그 民族國家의 尊嚴性을 國家의 經濟的 繁榮과 產業發展에서 찾아 보려는 努力으로 集約될 수 있어 이것이 가져오는 國際社會에서의 先進國對 後進國의 갈등은 더욱 가열되었다고 본다. 이와같은 현상이 先進強大國들간

에 共同으로 느끼는 도전으로서 그들간의 解氷무드나 平和共存 또는 現狀維持 政策을 誘發하는 結果로 나타났다.

적어도 列強國간의 解氷이나 平和共存의 명시적 내지는 묵시적 合意는 下位體系의 中·小國家들에게는 커다란 警鐘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이같은 國際社會體制의 構造的 變化를 가져오는 과정에는 弱小國들은 흔히 犧牲되기가 쉽다. 따라서 좀더 能動的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教訓을 준다. 同時에 能動的으로 事態에 對処해 나갈 때 弱小國의 相對的 行動反徑이나 力量이 늘어 난다는 것이다.

물론 全無하다고 할수 없다는 事實은 自명한 일이다. 故로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정세는 1970年代를 한민족의 슬기로움과 민족공지를 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民族回復의 新時代로 規定해도 좋을 것이다. 問題는 強大國들이 韓半島에 있어서 제시하는 方向이다.

필자는 獨逸의 東方政策 遂行過程에서 보여준 方向이 매우 參考가 된다고 생각한다. 「부란트」政權은 東獨을 事實上 承認하고 있다. 東獨의 地位를 確固하게 굳혀 주었으며 現存하는 東獨의 國境에 대해서 認定하였다. 즉 東·西獨關係를 制度化하였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現狀凍結이요 平和共存이다. 韓半島에 있어서도 強大國이 바라는 方向은 類似할 것으로 確信한다. 同時에 強大國은 平和共存을 制度化하려 힘쓸 것이다. 남북간에 緊張을 緩和하고 武力衝突을 防止할 수 있게 南北對話를 積極 推進하고 勸奨할 것이다. 그러나 이 對話나 接觸은 어디까지나 現狀維持의 線을 넘지 못할 것을 조건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을 克服할 수 있는 것은 韓民族의 問題요 우리의 自主的 力

量에 있다고 본다.

이것을 전제하여 볼때 비로소 接觸戰略의 意義를 찾을 수 있다.

V. 对北戰略으로서의 社会變動理論

社会變動 (Social Change) 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定義
할 수 있다 .

“ 급진적인 사회변동이란 어떤 個人의 생애에 일어나는 태도나 행
동상의 중요한 질적인 변화 ”라고 할 수 있다 . “ 그와 같은 개개
인의 변화가 증가할때 그사회의 제도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 즉
그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의 역할 또는 그러한 기능과 기능간의 相
互關係 , 그리고 기존관계 유형과 새관계 유형간의 相互關係에 변화
를 가져오는 것이다 ”

(Rapid social change may be defined as significant
qualitative modifications in attitudes and behavior
occurring within individual life time, As such changes
at the individual level become sufficiently extensive,
They manifest themselves, that is, in the roles played
by individuals, in the ways in which these roles are
related to each other in specific patterns of cues and
responses, and in the relations among existing and new
patterns, ” Geiger, Theodore

The Conflict Relationship : The west and the transformation
of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1967 P.100)

사회변동에 대한 이론은 정말 너무나 많다. 따라서 결정적인 대표적 이론이 없다. 물론 지금까지 발표된 것중에 몇개가 社會科學者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부 長短점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북한사회에서 적용되고 시험해 볼만한 것만 가려내어 지적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사회체제론적 입장에 선 「파슨스」(T. Parsons) 교수의 緊張(Tension)에 의한 變形(Transformation) 이론을 지적하겠다. 물론 이 「緊張」은 「움직이는 균형」(Dynamic Equilibrium)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변동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은 아닌 까닭에 아쉬운 점이 있으나 긴장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파슨스」는 緊張의 변형효과를 측정하는데 다음의 다섯가지 변수를 지적하고 있다.

1) 強度문제. 2) 하위체제에 있어서의 문제의 위치. 3) 하위체제와 全體體系와의 相關關係 4) 사회구조상 긴장의 성격, 그리고 5) 긴장에 대한 저항능력등으로 되어있다.

오히려 사회갈등이론은 위에서 말한 균형이론자들이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긴장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분석한다.

갈등이론자들은 모든 사회는 언제나 변화속에 있고 언제나 갈등을 안고 있으며 일부의 社會構成員이 기타 構成員을 強制하는에서 갈등이 생기며 歷史는 갈등의 연속이라고 본다. 대표적인 학자는

「다렌돌프」(R. Dahrendorf)로서 그는 갈등의 원인을 인간의 선

(善惡說에서나 우연한 역사적 사건에서 구하지 않고 社会的構造에서 찾고 있다. 사회구성원은 대부분이 권력의 불평등한 配分을 인식하는데서 갈등, 소외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다고 그는 말한다. 고로 문제는 지배 - 피지배 관계에서 규명될 수 있다고 한다.

「에치오니」(A. Etzioni) 교수는 위에 말한 두가지 접근방법을 종합하여 안정과 변동, 통합과 갈등, 순기능과 역기능, 동의와 강제라는 兩側面을 다같이 설명하려 하고 있다. 그의 사회변동의 변수로는 情報와 權力과 同意로 구분하고 있다. 정보와 權力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 통제요인이 높아지면 동의의 수준은 극히 하위에 머물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상에서 설명한것 중에 정리를 하면 남북대화나 접촉과 관련시켜 세가지 점을 지적해 두어야 한다. 첫째는 북한 사회에 內在할 수 있는 긴장/갈등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인식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情報問題다. 北韓社會는 外界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들로 하여금 外界에 대한 無知로 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물론 북한당국이 그 정보를 통제하고 조작할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사회를 완전히 폐쇄하면서 동시에 남북접촉이나 교류는 있을 수 없다. 셋째는 同意問題다. 지금까지 북한은 교육과 訓練을 통해 획일적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사상적 사고통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남북대화나 접촉과 교류를 통해서 그들의 흑백 논리적 인식론은 쉽게 불식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회변동 요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運動作用을 하는지 알아본다. 「가이저」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The process of qualitative social change is initiated by events that weaken or impede the ability of the established Paradigmatic figures and agents of induction to inculcate the traditional Values and norms in the customary ways ”

(Geiger, Theodore

The Conflict Relationship : The west and the Transformation of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1967 P.98.

즉 質的 사회변동과정은 그사회내의 社會化 (Socialigation) 과정에서 媒介役割을 하는 者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건들의 발생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나 규범이 합리화되지 못하고 설득력이 감퇴되는 사건들이 연발할때 사회변동은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면 사회구성원의 社會化 (Socialigation) 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변수들을 찾아 보겠다. 첫째 認識 (Perception) 문제이다. 개인은 인식방법을 통해 他人을 알고 또 그들의 사회적역활이나 그들이 속하는 제도를 알게 된다.

둘째 感情 (feeling) 문제이다. 인간의 느낌이다.

자기의 환경, 타인, 제도, 물체등 일상생활에서 형성되는 느낌을 말한다. 셋째 信念体系 (belief) 문제이다

넷째 神秘性 (Marvel) 문제이다. 어떤 개인이나 행위 또는 사건 및 어떤 상징적인 것을 보고 신비하게 느끼는 태도이다. 이것은 신념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다. 다섯째 行動樣式 (Action) 의 문제이다. 인간은 자기 사회적 위치에 따라 행동양식이 정해져 있고 행동규범이 있다. 이와 같은 행동규범이나 행동양식을 누구나 경험하고 배우게 된다. 끝으로 본보기 (emulation) 문제이다.

인간은 누구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간에 자기가 존경하고 본받는 人間形이 있다고 한다. 이 본보기를 통해 우리는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사회화하여 가는 것이다. (참고: T Geiger Ibid P.90)

이상 설명한 내용은 사회화의 媒介體와 社會構成員간에 작용하는 사회화과정의 변수이다. 우리는 누구나 특정된 문화 사회속에 태어나서 사물의 인식 방법을 배우고 타인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또 비슷한 價值體系를 형성하며 어떤 사실을 신비스럽게 느낄 수 있고 특정한 행위양식을 가지고 남을 본받을 줄 알게 된다 이것을 평소에 우리에게 항상 교시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은 가르침과 어떤 특정된 역사적인 우연한 사건과의 사이에 괴리현상이 생기며 거기에는 우리의 관념체제에 혼돈이 온다. 만일 이러한 모순된 사태가 반복될때 그 사회화의 매개체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할 경우 새로운 태도와 행동양식이 생기게 마련이다 (참조:
안병영 “북한사회의 변동가능성과 자유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
통일원 1972.6. PP 5~30)

VI. 社会心理学的 社会變動理論

여기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인간의 態度決定過程이다.

태도란 인간의 선천적 욕구충족의 욕과 사회적으로 容認되는 욕구충족의 방법을 관계지워주는 매개체라고 한다. 인간이 자기의 자제나 態度 (attitude) 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생각할 때 두가지로 구별할수 있다. 첫째는 어떤 특정태도를 구성하는 요소를 규명해 보는 방법과 둘째는 태도와 태도와 의 相關關係나 체계 (attitude systems) 를 검토하는 방법이다. 첫째의 경우 어떤 특정사실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세가지의 요소가 있을데

- 1) 認識 (Cognitive component)
- 2) 愛情 (affective component)
- 3) 行動 (action component) 등이다.

인식이란 목적대상에 대한 개념이나 의견을 말하고 애정이란 단순이 “ 좋다 ” 또는 “ 싫어하다 ”이다. 행동이란 反應에 대한 태도이며 그 방향을 정해주는 요소이다. 이 세 요소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은 대개 이 세가지 요소를 一貫性있게 대하려 한다고 하겠다.

둘째의 태도와 태도 상호간의 체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할수있다. 균형의 원칙 (The Principle of balance) 과 핵심초점의 원칙 (The Principle of focus or centrality) 문제로 나눌수 있다.

균형의 원칙은 態度體系에 있어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원칙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인간은 事物(Objects)이나 事態(events) 또는 狀況(Situations)을 볼때 전부를 연관성있게 同質的(belonging together)인 것으로 理解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어떤 政黨의 構成員 "A"가 개인적으로는 日本에 대한 감정이 否定的이었다고 해도 黨의 정책이 友好的일때는 黨과 日本을 조화하려고 힘쓰게 된다는 뜻이다.

초점의 원칙(The principle of focus)에 관해서는 인간의 태도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핵심적인 태도가 있어 그것을 초점으로 하여 기타의 많은 부수적인 태도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이것을 세가지로 구별할수 있는데 1) 自己自身(The self)

2) 重要한 他人(significant others) 3) 特定の 包括的的價值(certain all-inclusive values)이다. 먼저 인간이 自己自身에 대한 태도가 정해지면 기타 많은 태도나 행동이 자연 결정되게 된다. 속담에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다.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잘 표현하였다고 본다. 자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상관 없다. 오직 인간은 自我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필요로 한다. 均衡原理에 의해 자신의 自我觀과 타인 또는 제3자가 評價하는 나(自我)를 조화시키려 한다

- 즉 a) 自我란 내 스스로가 내자신을 평가하는 그대로다
- b) 自我評價는 제3자가 나를 여하히 평가하느냐에 달렸다.
- c) 나는 자존심을 가지려 애쓴다

d) 따라서 나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과는 피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자들과 만이 교제한다.

e) 고로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는 제삼자가 나를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

“중요한 타인”이란 개인의 태도 결정에 있어서 언제나 배경이 되는 第三者의 무리(群)라고 한다. 우리가 사고하든가, 신념을 갖고 또 행하고 하는 모든 일을 “타인”이 인정하고 합당하게 評價해 준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앞서 지적한 데로 개인은 자기 나름의 체신을 지키는데 이 체신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남에게서 좋은 평을 받을려면 보통 그들과 의견을 같이 해야 한다. 그러나 이 “타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그들을 参照集團(reference group)이라 한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참조집단의 변질을 여하히 유도하느냐이다.

이 개인의 참조집단은 주관적으로 형성되며 객관적 사회계층과는 다르다.

特定の 包括的價值(Certain all-inclusive values)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이념을 말한다. 民族主義, 家族文化 또는 反對價值로 帝國主義 같은 것이 있는데 民族主義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 사물은 옳하고 가치있는 것이고 제국주의와 관계되는 모든 사실은 옳하고 나쁜 것으로 이해되고 인정되기가 쉽다.

따라서 포괄적 가치이념이 형성되면 그와 상관되는 여러가지 사실

은 설득하기 쉽다. 이것과 관련해서 目的과 手段 (means-end) 한계도 같은 논리로 설명할수 있다. 어느 개인의 어떤 목적을 설정해서 그 목적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할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方法도 선하게 느껴지는 것이 보통이다. 고로 결론을 이미 알고 또한 正當하다고 믿고 있을 경우 사람들은 論理에 맞지 않는 말로도 쉽게 同意한다는 것이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잘 利用하면 인간의 態度形成過程을 操縱하며 변화를 유도할수 있다. 이 조종에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대화 또는 전달 (Communication) 이요 또 하나는 參與 (Participation) 이다. 「코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에 대해서 「라스웰」 (H. Lasswell)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떠한 상황하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효과로 ” (WHO says WHAT to WHOM under WHAT circumstances through WHAT channels and with WHAT effect)

위의 변수는 마즈막 것을 제외하고는 모다 獨立變數로서 操縱대상이 된다. 그 결과는 從屬變數로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을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한다. 먼저 「누가」 (who) 말하는나의 문제이다. 이것은 情報源 (source) 의 문제로서 信憑性이나 公信力의 문제다. 대화의 主体나 相對가 신빙성이 높다는 것은 그 對話者가 권위가 있다. (The authority of the source) 또는 그 情報源과의 거리 또는 간격 문제이다. (the distance of the source)

둘째 「무엇을」 (what) 말하는나의 문제이다. 이것은 대화의 내

용이다.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상대의 생각을 변질시키려면 態度体系의 연관성과 心理的 同質性的 原理:(Principle of psychological belongingness) 을 최고도로 활용 할수 밖에 없다. 「푸로파간다」(propaganda)가 효과를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反復(repetition)이 심리적 동질성의 원리를 작용시키는 까닭이다.

셋째 「누구에게」(whom)의 문제다. 대화의 상대 또는 대화의 상대 또는 聽衆(audience) 문제다. 남북 접촉의 경우 대화의 상대가 일견 보기에는 매우 제한된 것 같은 느낌이다. 물론 북한은 開放社會가 아니며 閉鎖社會이다. 그리고 통제도 철저하다. 그러나 그 사회가 전혀 침투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 언어가 같고 관심이 높고 또한 폐쇄된 사회이기에 전달은 과장되고 그 속도가 빠르다. 문제는 청중 또는 대화의 상대가 갖고 있는 先入感과 既存態度이다. 이 既存態度는 그들의 基本的價值觀과 직결되어 있어 그들로 하여금 단지 선택된 인식(selective perception of information)만 가능하게 할 경우도 있다.

넷째 「어떠한 환경에서」(under what circumstances)의 문제이다. 이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다. 사회학적 측면과 심리학적 측면이다. 사회학적으로 볼때 한 사회의 구성분자가 그 사회의 價值體系에 적응하는데는 세가지 길이 있다. 1) 社會化過程(socialization process)을 통해 2) 그 사회의 根本價值와 연관시켜서 3) 裁制(sanction)에 의해서 강제된다는 등이다. 따라서 강제

에 의한 경우 그 제제의 위험이 해제될 경우 그와 같은 환경속에서는 태도변질이 가장 쉽게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심리학적으로는 既存價值體系가 개인의 욕구 충족을 감당할수 없게 되었을때 그와 같은 환경에서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쉽게 받아 드려질수 있다. 팔로 참여 (participation) 를 통해 태도를 변화시킬수 있다. 즉 言行을 一致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우리는 이 원칙을 이용한다. 우리가 相對를 급작스럽게 行動 (action) 할수 밖에 없는 처지를 만든다. 즉 생각할 여지가 없게 한다. 그리고 나서 행동한 후에 생각할 수 있게한다 (To act first, and think later) 이 행위후의 사고는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사고를 하게 된다.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이 인간이다.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들의 신념 또는 이념에 상반되는 사회적행위를 하게하면 그후에 자기의 이념을 비판하기란 쉽다.

또한 개인의 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들 變質對象者를 集團的 決議 過程에 참여시키는 방법이라고 한다. (참조 : Hoogvelt, J.m.m psychological Instruments in National Development the Hague ISS Lecture Notes, unpublished)

VII. 段階的接近 - 機能的接觸

지금까지는 社會學的 心理學的 見지에서 본 社會變動 理論이었다. 그러면 이제 南北接觸의 方法論 즉 接觸媒介에 관한 것과 그 방향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다. 필자는 이 章의 제목을 단계적 접근과 기능적 접촉이라고 하였다. 이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해야 하며 가장 合理的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계적인 접촉방안을 우리의 남북접촉의 기본방침으로 정하였다. 즉 人道的問題에서 부터 시작해서 非政治的問題로 그리고 政治的問題로 옮겨 가도록 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비판적인 論評이 많다.

첫째 남북대화에서 가장 어려운 이산가족찾기 운동부터 시작했다는 평이다.

필자는 남북대화는 무엇이든 모다 難題라고 전제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어떠한 남북대화도 어렵지 않았던 것이 없을 정도다.

체육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요는 어렵다고 할때 그 기준을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으로 구별할 수 바께 없다고 본다.

이 政治的 - 非政治的문제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 인도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남북적십자회담은 올바른 출발이었다고 본다.

중요한 사실은 남북이 가족찾기 운동이란 명목으로 대화의 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대화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 그자체가 중요하다. 동시에 뒤에 설명할 機能的 接觸過程에서 일어나는 파급효과나 기타 접촉작용을 감안할때 인도적 가족찾기 운동이 무언중에 강조하게 될 韓民族의 전통사상인 가족문화는 북한사회가 그동안 봉건적 가치로서 변형하려 했던 것이니 그들의 가치체계에 변질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그뿐아니라 가족찾기 운동이 진전되면 가장 광범위한 접촉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態度變動의 요인인 대화전달문제나 대화내용의 신빙성문제도 아주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공격이다. 필자도 남북간의 대화에서 특히 그 구별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유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간의 분쟁해결의 방식을 보아 분쟁내용이 정치적이냐는 기준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즉 국가간의 분쟁해결이 가장 어려운 영역이란 국가의 主權, Sovereignty 에 관한 문제로 獨立, Independence 에 관한 문제 그리고 국가의 위신 National honour 에 관한 문제였다. 따라서 한사회가 주관적으로 해결을 원치않는 분야는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기타는 비정치적 領域에 속한다고 하겠다. 남북접촉에서도 합의될 수 있는 영역은 대화가 進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자연히 단계적인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셋째 현시점에서는 南北調節委員會가 구성되고 있으니 단계적 접

축이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는 論評이다.

필자는 南北調節委員會의 구성이 곧 정치적인 통일과업의 합의라고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화의 방법론에 合意가 있을뿐이다. 實質問題의 합의가 있는것은 아니다. 그들은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등 문제를 「협의 결정하여」로 되어 있어 협의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接觸交流問題를 논의하고 實質문제 를 토의할때는 역시 비정치적인 영역이 더 쉽게 합의될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반다시 時制的인 연속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多務的 接觸은 접촉의 다변화를 말하며 그와같은 방법이 바람직하다.

기능적 접촉이 노리는 바는 역시 북한 사회의 개방화요 자유화이다. 기능적 접촉이론이 접촉작용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 파급효과 Spillover Capacity 이론이다. 일단 접촉이 시작되면 기능적인 면에서 과업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지며 그효과가 확산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남북접촉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통합과정이라고 하겠다. 둘째는 기능적 접촉을 통해서 개인의 忠誠心이 이전된다고 한다. 북한국민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해온 金日成 唯一思想에 대한 충성심에 변질이 간다면 북한사회를 우리는 그정도 사상적으로 해방시킨 결과가 된다. 셋째 기능적 접촉은 북한사회를 開放化하고 自由化하는 방법이다.

앞서 말한 社会心理学的방법으로서 개인의 태도와 사고를 변질시킬려고 할때 기능적 접촉은 대화의 기회를 주는것이며 다양한 情報源

(Information) 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기능별 접촉방법을 구별해보도록 한다. 1) 사회적 접촉
2) 경제적 접촉 그리고 3) 정치적 접촉이다. 설명의 편의상
뒤부터 설명하면 정치적 접촉은 ① 制度的 統合을 위한 접촉
② 政策統合을 위한 접촉 ③ 政治行營的 統合을 위한 접촉 (정치적
의식의 통합이다.) 그리고 ④ 統合安保를 위한 접촉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제도적인 면에 대해서는 行政的, Bureaucratic 인
면과 管轄權的, jurisdictional 인 면이 있다.

경제적인 접촉은 交易를 위한 접촉과 用役교류를 위한 접촉
그리고 技術協力を 위한 교류로 구분한다. 교류를 위한 남북접촉
에도 단계가 있는데 경제통합 과정에서 나타나 ① 自由貿易段階
② 關稅聯合段階 ③ 共同市場段階 ④ 經濟聯合段階 그리고 끝으로
⑤ 完全經濟統合段階로 나누게 된다. 제일 단계는 Free Trade
Area 단계로서 관세 및 쿼타제를 폐지하여 제2단계는 Customs
Union 단계로서 대외적으로 공통관세를 실시하고 제3단계는
Common Market 단계로서 生産要素의 자유유통단계요 제4단계는
Economic Union 단계로서 경제정책을 상호조정하는 단계이며 제
5단계는 Total Economic Integration 단계로서 완전통합단계를
말한다.

끝으로 사회, 문화적인 접촉이 있는데 여기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인도적 사업부터 시작해서 災害救濟事業 복지사업
이나 기타 사회·문화 전반에 관한 접촉교류가 매우 요망된다.

체육교류, 예술, 학생교류 및 수학여행등 많은 분야를 생각해서 교류는 북한 사회를 자유화하고 개방하게 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다.

「유고스라비아」의 경우를 보면 그들의 사회체제와 민족총화가 이룩되고 자신이 있을때 문호를 마음껏 개방하였다. 따라서 북한 사회의 정치적 「에리트」에 자신감을 넣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남북접촉의 직접적인 방법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직접적인 방법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間接的接觸이다. 즉 해외에서의 접촉을 말한다. 해외에서 남북이 접하는 事例는 外交的次元이 있고 민간적 「레벨」이 있다. 외교적 차원에서는 1) 국제회의시에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2) 海外常駐公館이나 貿易代表部등에서 대면하게되고 3) 國際聯合會 및 그산하의 專門機關에서 대면하게 된다. 필자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외교무대에 유도해서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나 필요없는 경쟁은 南北調節委員會를 통해 족절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필자가 북한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시키고저 하는 이유는 역시 북한사회로 하여금 外界에 대한 無知로 부터 해방시키기 위함 이요 해외에 진출함으로써 情報源, (information sources)이 다양해지며 태도 또는 의식이 형성되지 않았든 문제 즉 아직 접하지 못한 문제들은 쉽게 개방체제에 물들기 때문이다.

민간 「레벨」에서도 같은 論理가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해외에서의 학술회의에서 또는 체육행사 기타 문화 예술행사시에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것이 좋다.

海外에서 동포를 대면하게 되면 그들간의 友好관계는 급진적으로 개발될 수가 있다. 물론 해외에서 상주하는 자들간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경우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기 여행자들은 편우호적이고 솔직한 심정이 된다. 어린 아동들의 심정이 된다. 오직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裁制나 사상을 위심할까 두려워서 접촉을 기피한 것도 사실이다. 그와같은 위험이 없을때 자유로이 접촉할 수 있게되면 민족의식을 더욱 굳게 인식할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첨부해야 할 사실은 남북간의 접촉을 물량적으로 集計하여 분석해서 그들의 의식구조상의 변질과정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物量적으로 접촉대상인원과 그빈도를 계산하여 보면 북한사회에 자유화의 물결이 어느정도 침투되었을 까를 평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뒤에 지금까지의 물량적 집계를 시도해 보겠다.

Ⅷ. 機 關 形 成

1972년 7월 4일부 南北共同声明의 합의사항을 추진하고 남북간의 관계를 改善 발전시키며 各分野에서 힘을 합쳐 같이 事業하기 위해서 南北調節委員會는 그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남북이 政黨 社會團體 및 개별적 人士들 사이의 광범한 政治的 交流 둘째 남북사이의 經濟, 文化的, 社會的 교류 셋째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문제 넷째 對外活動에서 남북이 공동보조를 취하며 單一民族으로서 民族的 긍지를 선양하는 문제로 되어 있고 이것을 위해 南北調節委員會안에 政治, 軍事, 外交, 經濟, 文化, 分科委員會를 둔다고 한다. 남북조절위원회의 사업이 진척되는데 따라 남북간의 접촉은 광범위하게 추진될 것이요 각분야에 걸쳐 교류가 행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쌍방간에 시험적인 교류와 교류가 대내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자신이 생길때 서서히 진행될 것이며 그때까지는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교류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간의 軍事的對 狀態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한다는 군사적인 측면은 예외로 하고 라도 정치적교류나 경제 문화 사회적교류는 북한을 개방사회화하고 자유화하며 外界에 대한 無知 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변수역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와같은 남북간의 「힘을 합쳐 같이 事業하는」 동안에 새로이 설립되는 남북간의 接觸機關의 형성문제를 둘러 싸고 검토해 보겠다.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된 이래로 남북간에는 한정된 범위를 넘지 못하였으나 이미 교류가 개시되었다. 우선 남북간의 접촉회수와 기관형성과정을 보면 남북적십자 회담을 위해서 지금까지 총 50차 회담을 갖었다. 첫째남북 두사람식의 적십자 파견원의 접촉이 다섯차례 있었고 둘째 남북대표 다섯명식 회동한 予備會談이 25차 있었으며 다시 두사람식의 實務者會議을 일·이차에 걸쳐 각각 13차와 3차 회동하여 본회담에 드러가기 전에 총 46차 모임을 갖었다. 그후 본회담은 평양에서 두번 서울에서 두번 있었고 관계 인원은 대표7명 자문위원 7명 수행원 20명 기자 20명씩 해서 총 54명이 교류된 셈이다.

기타 회담을 위해 신설된 기관이 셋이다. 첫째 한적에서는 남북적십자회담을 위해 그사무를 전담할 事務局을 신설하였다.

둘째 나아가서 韓赤 前方 會談事務所도 설치하고 세계 쌍방은 板門店에 常設會談連絡事務所를 설치하여 한적은 “자유의 집”에 그리고 북적은 “판문각”에 각각 설치하고 直通往復電話를 가설했다.

이제는 南北赤十字會談과 병행해서 南北諒解委員會가 이미 公式 非公式을 합해 여섯차례 會同하였다. 7.4공동성명까지의 두차례에 걸친 비밀회의와 共同聲明이후 판문점과 서울, 평양에서 회동

한 調節委員會 委員長 會議가 세차례 그리고 마즈막 제삼차 조절위원장 회의시에 발족을 본 調節委員會가 정식으로 제일차 회합을 지난번 서울에서 가졌던 것이다. 조절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한명씩과 간사위원 일명과 위원 이명으로 되어 있어 총 5명이다.

그러나 조절위원장회의가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되었을때 수행한 인원은 보좌단 수행원 및 기자단을 합해 일행 25명이었다. 남북조절위원회는 共同事務局을 판문점에 두기로 되어있고 共同事務局長은 쌍방 幹事委員과 각각 간사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남북 적십자 회담이나 남북조절위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접촉을 하게되면 그들사이에는 자연이 친밀해져서 同志意識이 생기게 되고 자연히 공동운명체적인 감각이 형성된다. 이것을 기능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忠誠心の 移轉(Transfer of Loyalty)이라고 말할수도 있겠고 그것과 관련시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필자는 南北 政治 社会 指導者들의 社会化 過程 (Socialization Process) 이라고 하겠다. 특히 회담이 끝난후에 가지는 만찬회나 「리셀튼」 같은 것은 남북의 권력 「에리트」 (Power elite)의 좋은 社交場이다. 접촉이 다변화해 지면 남북간에는 범민족적 기능별 통합사회 단체가 유형 무형으로 형성될 것이다.

그들사이의 비공식적 대화나 의사전달은 情報源, (Information source)으로서의 효과를 십분 발휘할 수 있다.

남북접촉에는 협상을 위한 대화의 단계와 협상을 통해 합의된

남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협상단계에서 필요한 機關構成은 대개 그 類型 (Pattern)을 짐작할 수 있다. 그다음단계인 實行段階에 있어서의 기관구성 (Institution Building)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을 불허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제간의 機能的協力機構를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事務局이 창설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의 執行機關은 쌍방의 기능대표간의 협상이 성립되어 집행해야 할 事業이 합의되었을 때 그사업을 쌍방이 각각 개별적으로 단독 집행하고 그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할 책임을 질뿐이다. 이것을 個別執行事務局이라고 하면 둘째의 형식은 독립된 사무국의 창설이라고 하겠다. 이 독립한 집행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雙方代表制式 事務局이 있을 수 있고 人材 本位制式 事務局이 구성될 수 있다.

첫째의 個別執行事務局의 장점으로서는 사업이 좀더 신속하게 능률적으로 運營, 執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방법은 사업추진이 对内政治的 支配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둘째의 雙方代表制式 事務局은 그 구성에 있어서 좀더 獨立的이고 사업추진에 熱意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 進一步한 느낌이다. 즉 협상단계에서 합의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남북 공동으로 執行機關을 설립하고 担当職員을 쌍방이 대등하게 선임하여 파견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常設的인 실무자회의와 비슷하여 사업추진력에 있어서 제한이 없지는 않지만 첫째 방안보다는 발전한 단계로 본다. 南北調節委員會의 共同事務局은 이러한 뜻에서 좀더

발전한 형태이다. 즉 공동사무국에나 双方代表制式 事務局長을 각각 한명씩 임명하고 그 밑에 필요한수의 人員을 두게 된다.

물론 이 공동사무국은 事業執行機構가 아니고 오직 남북조절위원회나 간사회의를 위한 연락 및 行政補助기구로서 기능이 제한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의 人材 本位制式 事務局은 그 구성에 있어서 완전히 第三者的 성격을 갖는다. 완전히 통일정향적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준비단계라 할수 있어 크게 발전한 상태라고 보나 실현성이 희박한 점에서 단점이 크다. 이와같은 기관 형성과정을 다음 계속해서 평가해보겠다.

IX. 機關形成과 統一指向性 評價

앞서 論하였지만 우리가 남북접촉에서 바라는 바는北韓社會의 體質變化이다. 김일성 유일사상의 退化에 이은 그들의 開放化요 自由化이다.

좀더 그들이 實用主義的 성격은 가져서 탈「이데오로기」적 경향을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사회에 內在하고 있는 긴장과 갈등을 極大化하는 길이요 그들의 總和體制를 위한 同意形成過程, (Consensus making process)에 회의적 態度와 意見간에 괴리現狀을 유도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목표를 두고 남북조절위원회와 7.4 공동성명의 정신위에 進行될 수 있는 방법이란 교류를 위한 접촉이요 접촉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情報(Information)의 量을 증대시키고 對話(Communication)를 統制(Control)하여 參與理論(Principle of Participation)을 적용해서 意識構造에 變質을 가져오는 길이다. 이와같은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남북접촉을 모든면에서 그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서는 앞章에서 論한 接觸機關形成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관형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직접 참여하거나 관련되는 인원이 많은 형태가 효과적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성격상 협상단계나 집행단계에서 직접 간접으로 관여할 인원이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직접 관여하는 인원을 높이려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사업 그자체에 달려있다.

그런 점에서 남북간의 離散家族찾기는 매우 尙당한 사업이라 하겠다. 이 사업과 관련시켜 생각할 때 두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사업 또는 課題가 민족적 統一意識이나 民族主義를 昂揚할 수 있을 때 그들 북한사회의 의식체계에 再整備를 요하게 된다. 또 하나는 그 사업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이며 자주 반복하고 그 反復回數가 많은 것이 좋다.

둘째는 설립된 기관의 합의과정 또는 意思決定方式에 따라 그 기관이 統一指向的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다. 勿論 접촉의 초기 단계 즉 協商段階에서는 쌍방의 完全合意가 없을 경우 그 협상이 진전될 수 없다. 그러나 합의된 사항 또는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항상 완전합의만이 의사결정의 방법이라고 할 때 그기관 즉 事務局은 능률적이 되지 못한다.

어떤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기관에서 어떤 형태로라도 多數決의 方式이 적용될 수 있다면 진일보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설립된 機關의 權限伸張 문제다. 설립된 機構의 기능과 권한은 원래 基本合意文書에 明示되어 있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체적인 방향이나 원칙에 대한 규정에 그칠 경우가 많고 事業実行도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경우에 그기구가 獨自的으로 가지는 自由裁量이 어느정도 허용될 수 있느냐에 따라 그기구의 活力性을 평가할 수 있다.

動的 (dynamic)인 기구라야만 접촉과 대화 및 교류가 더욱 活潑해지고 그 접촉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떤 특정 기구의 活力性을 측정하는에는 다음의 네가지 점을 유의해서 평가 할 수 있다.

1) 財政的與件이다. 그機關이 독자적인 財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와는 그기구의 活力에 큰 差異를 가져온다.

2) 그기관이 관장하여야할 사업 또는 업무의 限界問題 역시 그기관의 成長可能性을 먼저 한계지워 준다. 업무의 한계에 특별한 규정이나 명확한 한계가 없을 경우 그기관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상당한 범위까지 확장될 수 있고 本業務에 연관된 사업을 광범위하게 관장할 수 있게 된다.

3) 남북접촉에 있어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할지역문제도 있다. 事業執行機關이 해당사업을 관장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여행을 마음대로 하고 남북을 다같이 관할할 수 있는 경우와 오직 남은 남 그리고 북은 북만 관장하게 된다면 그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하겠다. 그리고 끝으로 4) 사업의 對象地域 뿐만 아니라 사업의 대상인 人的管轄問題도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가 총괄적인 인적 관할권이 있는 경우와 부분적 인적 관할권이 있는 경우와는 그기구의 활성에 있어서 매우 차가 크다. 인적관할문제와 결드려 南北接觸 事務局이나 협상회담에 관여하고 있는 人士들의 身分에 관한 問題도 적지않게 중요하다. 그들의 신분이 어느정도 보장되어 있는가에 따라 남북접촉의 추진력에 차이가 날것이다.

完全身分保障이란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고 본다.

네째는 機構組織方式문제이다. 事務局직원들의 신분문제와도 관계되는 문제지만 雙方代表制式 事務局의 구성보다는 독립적인 人材本位

制式 事務局이 한層 통일지향적이다. 남북조절위원회의 共同事務局을
위시해서 남북접촉의 진척에 따라 공동기구가 다수 설립될 가능성
이 있다. 그 경우 마다 가능한 한 下位의 사무직원은 人材本位
制를 추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단계에서 남북접촉과정에서 形成된 접촉기구에 직접, 간접으
로 참여한 인원수를 총합계하여 보면 접촉과정에서 "영향"을 받
은 인원수가 밝혀 질 수 있다. 勿論 延人員數로서 이것은 오직
物量的分析 (Quantitative analysis)을 위한 資料가 된다.

먼저 회담단계에 관여된 연인원을 합해 보면 직접관여한 인원과
간접인원으로 구별한다.

간接人員이란 회담에 관여되지 않고 다음에 규정하는 直接人員에
관한 이야기를 報導機關을 통해 듣거나 기타 간접적 방법에 의해
서 듣고 회담내용에 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시하는 群衆을 말한
다. 이것은 양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기 매개의 경우 輿論調査나
報導機關의 추산에 의해 人口의 百分率 (Percentage)을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直接人員數는 좀더 상세하게 算出할 수 있을 것이다.
直接人員은 대개 다음의 여섯부류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

- 1) 회담을 직접 담당하는 대표나 위원들
- 2) 諮問委員이나 專門委員 3) 隨行員 또는 行政事務要員
- 4) 行政補助要員 5) 内外記者 및 報導陣 및 6) 기타 儀禮人士
등이다. 4)의 행정보조요원이란 案内嬢들을 위시해서 접대를 위

한 인원 또는 호텔 종업원 그리고 운전수 등을 말한다.

(그리고 6)의 儀禮人士라고 하는 것은 社會有志나 社會團體代表등 그리고 會談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나 권력「에리트」(Power elite)로서 만찬회나 「리셉션」에 꼭 초대되고 參席해서 상대방대표들과 환담을 교환해 보는 인사들을 말하고 있다. 고로 회담대표, 자문위원, 수행원 그리고 내외기자 및 보도진까지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다.

이번 남북회담에 수행한 報導陣의 인원은 많이들 교대해서 보도취재를 했다고 알고 있다. 행정보조요원도 그 구분의 한계를 정확하게 하면 그 관여된 수도 정확하게 될 수 있다.

좀더 부정확한 숫자가 마즈막 의제인사의 경우이다. 그것도 오차를 감안해서 산출하면 되므로 총합계가 계산이 된다. 이것이 정리가 되면 이들의 意識構造나 認識(Perception) 그리고 態度(Attitude)에 어떠한 變化를 가져왔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상대방이 우리의 조사에 應해 줄리 없으므로 간접적인 관찰방법과 좀더 세련되고 기술적인 시험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X. 接觸過程에서 展開되는 自由化現象指數 (Indices)

다음은 접촉과정에서 展開되는 北韓社會의 自由化現象을 어떻게 評價할 것이며 評價尺度는 무엇이며 그 社會가 變質되는 징후는 무엇들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것을 먼저 대내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指數로 분류해서 설명한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첫째 單一民族意識이 고조된다.

특히 南北間에 있어서 이념과 體制의 차이에 상관없이 한반도의 국민은 전부가 한민족으로 굳어지게 된다. 이 민족의식이 두엇보다도 앞설 때 가장 統一指向的이다. 거기에는 反動分子도 地主階級도 또는 資本主義的 帝國主義의 앞자비도 없다. 오직 同族이요 同胞라는 생각이 앞설 때 통일을 向한 民族史的 轉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둘째 單一民族意識과 함께 民族統一의 念願이 理想化할 때 통일을 向한 活力素가 되는 것이다. 이 통일 念願이 한民族에게 至上課題요 최고의 價值가 될 때 政權史的 難關을 돌파할 新념이 생기는 것이다.

統一念願이 共產主義思想이나 金日成 唯一思想과 결합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셋째, 忠誠心의 轉移現象이다. 지금의 北韓社會體制下에서는 김일성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도록 訓練이 되어왔고 組織되어 왔다. 이와같은 경우 南北이 對話와 接觸 및 交流를 거듭하는 동안에 절대적인 求心點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구심점 자체가

可變的인 것으로 認識되기 시작하면 그들의 사고유형에 큰 變質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勿論 이 세 가지 問題 즉 民族意識, 統一念願 및 忠성심문제는 단시일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오랜 接觸過程을 지나서야 만이 認知할 수 있는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보다는 좀더 단시일에 나타나는 變化現象을 본다면

베짜, 指導階層人士들의 融和現象(Elite Socialization)이다.

접촉단계에서 南北代表들의 대화내용을 보고 상호 접근하는 樣相을 네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보았다.

1) 社交段階 2) 親面段階 3) 相互信賴段階 4) 相互理解段階이다.

1)단계에서는 대표들간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탐색전이 벌어진다.

그러나 서로가 매우 조심스럽게 대하며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접한다.

2)단계에서는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알게되고 생각, 언어 습관등의 차이점이 부각되니 서로 率直하게 그들의 입장과 생각을

털어 놓고 정면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충돌을 하게 되어 대화가 예리해지고 기분이 몹시 상하기 쉽다.

3)단계때 부터는 서로 어느정도 믿게되고 대화에 좀더 여유가 생기게 된다. 경어(敬語)도 省略하고 반말이나 메로는 상스러운 욕도 할 수 있게 되며

의사소통은 용이하게 되는 편이다.

끝으로 5)단계에 가서는 서로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이해하는 단계이며 문제점의 限界를 알아 可能한限 共通點을 찾아 보려 努力하

는 단 계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접근이며 발전이다.

다섯째 통합사회단체 또는 이익단체의 대두이다. 이것은 공식 비공식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宗教團體라든지 言論人團體 및 藝術人이나 体育人 團體들이 形成될 可能性이 있다. 同時에 地下에 조직될 可能性이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正確히 把握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團體를 통해서 政治的인 침투가 가능한 까닭이다.

여섯째, 北韓社會의 靑少年 사이에 所謂 퇴폐풍조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長髮이나 옷모양에서도 감지할 수 있고 그들의 태도나 音樂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廢鎖體制가 變質되는 現象이다.

饑饉에 應하는 態度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일곱째 이런 狀態에서 다시 情報源(Information Sources)를 통제하게 된다.

이 통제방법으로 봐서 내적인 문제의 긴장도를 탐지할 수 있다.

그러면 對外的인 側面에서 北韓社會의 開放度를 여하히 검토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우선 첫째 經濟的인 側面에서 볼 때 外國과의 貿易構造나 外國과의 資本導入方法을 檢討하면 北韓社會의 變質度를 알 수가 있겠다. 둘째 北韓의 外交使節들이 얼마나 해외에 파견되어 있으며 北韓留學生들이 어느정도 海外에서 留學하는지를 봐서 판단할 수 있다. 그들의 年令, 留學할 國家의 選擇 및 滯留期間 그리고 歸國後의 動向등을 검토 분석하면 그社會의 變動方向을 이해할 수가 있다.

세째 그중에도 가장 중요한 指數가 國際通信關係를 검토하는 것이다.

外國과의 通信의 頻度를 보아서 判斷하는 方法인데 勿論 그 交信內容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없다. 다만 回数로서 開放度를 測定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 항공선의 출입국 회수라든가 乘客의 數를 計算하면 쉽게 알 수 있다고 본다. 그뿐 아니고 外國人の 出入國者數나 觀光客들의 數를 보고 判斷이 간다.

또한 국제서신의 양을 계산해 보아서 그양의 증가에 따라 내용 분석까지 추리할 수가 있다. 勿論 國際電信이나 電話의 回数도 그들의 國際的 접촉의 성격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만일 대외적인 접촉이 과열되면 정부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을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대내적인 정치적 긴장도도 上昇할 可能性이 많다.

XI. 結 論

逆機能에 對한 韓國의 對備策

지금까지 說明한 內容은 焦點을 北韓社會에 두고 그 社會의 變動可能性을 檢討하여 왔다. 北韓社會內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構造의 內的 要因에 의해서도 自然히 그 社會가 變化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것에 對해서는 韓國外國語大學의 안병영教授가 報告한 「北韓社會의 變動 可能性과 自由化 方案에 關한 研究」에서 具體的 內容을 찾아 볼 수 있다. 問題는 萬一 北韓社會 自體內의 社會變動要因에 의해서 變質이 된다면 그 方向이 어느 方向인지 正確하게 알 길이 없다. 그러나 北韓社會같이 閉鎖的인 社會가 變質하면 開放될 수 밖에 없지 않으나고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좀더 그 變化를 加速化하고 自由化하려고 할때 接觸戰略이 必要한 것이다. 이것은 協商戰略이 아니다.

이 戰略은 몇가지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다.

첫째 北韓社會를 開放하기 위해서는 南韓社會도 開放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둘째 이 戰略을 그대로 逆利用하여 北韓政權이 노리는 南朝鮮 人民革命을 誘導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筆者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點을 들어 對備할 수 있게 한다.

첫째 南韓이 時急히 定立해야 할 課題는 大韓民國 國民을 總體

的으로 支配할 수 있는 指導理念의 定立이라고 하겠다. 새로운 價值觀의 創造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最高價值로 믿어 온 自由民主主義는 浪費요, 非效率的이며 韓民族에게는 外來的인 것이 라고 規定지웠다. 問題는 그것을 代置할 肯定的이요, 積極的인 理念이 必要하다.

둘째 理念이 반드시 必要한 것이 아니다. 오직 國民 個個人에게 이 疆土가 그들의 보금자리요, 이 國家가 그들을 保護해 주며 이 社會가 그들을 完成시켜 준다고 믿게될 때 그것이 곧 信念이요, 國民된 증지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곧 國民의 總和다. 이 國民總和는 社會正義가 實現되고 福祉社會가 建設되고 적어도 社會不条理와 貧富의 格差가 우선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人間의 創造力을 發揮하고 參與意識을 느낄 때 그 社會가 無限히 所重하게 된다.

셋째 反共教育을 革新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反共教育은 矛盾되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 北韓社會를 競爭과 對話에서 이기려면 그 社會의 長點과 強點을 正確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社會의 長點과 短點도 亦是 正確하게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할 때는 相對가 神秘스럽게 느껴지는 범이다.

넷째 開放社會는 閉鎖社會에 比해서 外的刺戟에 對한 抵抗力이 強하다. 韓國은 北韓社會에 比해 社會變動의 變數操作에 이겨나가는 힘이 強하다고 確信하고 있다.

参 考 书 籍

Eisenstadt, S.N. (ed.)

Readings in Social Evolution and Development

Oxford: Pergamon Press, 1970.

Geiger, T.

The Conflicted Relationship: The West and The Transformation of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7.

Almond, G.A. & Powell, G.B. Jr.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66.

MacIver, R.M. & Page, C.H.

Society: An Introductory Analysis

London: MacMillan, 1950.

Mannheim, K.

Man and Society: In an Age of Reconstruc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40.

Parsons, T.
"Evolutionary Universals in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June 1964.

Parsons, T. and Shils, E.A.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51.

한 병 영

「北韓社會의 變動可能性과 自由化方案에 關한 研究」
國土統一院, 1972.6.

Etzioni, A

Political Unification
New York: Holt, 1965.

유 재 승

「機能主義理論과 南北再結合」
國土統一院, 1972.8.

Nye, J.S.

Peace in Parts: Integration and Conflict in Regional Orga-

niza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71.

Hoogvelt, J.M.M.

Psychological Instruments in National Development
The Hague ISS Lecture Notes, (unpublished)

Janis I.L. and Frick, F.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Toward Conclusions and
Errors in Judging Logical Validity of Syllogism
J.Exp.Psych., 1943.

Centers, R.

The Psychology of Social Class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9.

